

# 수련회 이모저모



양군 소재 소백산에서 생산자, 소비자 회원  
를 가졌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한 그날

<편집자 주>

는 자생약초 채취요령 강의시간. ③「생약인  
법. ④약초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표본  
을 무슨 약초인지...」 ⑦집중호우로 삶의 터  
복용법에 관해서도 잘 알아두자.」 ⑨소백



(4)



(9)

## 싱싱한 열정에 기립박수

○...오전 9시30분 제기동을 출발해 단양 소백산으로 향해 가던 일행은 10시쯤 뒤쫓아 오는 택시 하나를 발견하고 일단 정지. 이같은 해프닝을 연출한 주인공은 바로 서대문구 홍은2동의 이영자씨.

버스를 놓친 이씨는 제기동에서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줄곧 일행을 쫓아와 버스가 경기도 하남으로 접어들기 직전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뒤쫓아온 이영자씨의 열정에 차안의 일행들은 일제히 환호의 기립박수를 보내 격려.

## 생산자 소비자 함께 어루어져

○...행사 첫날 제2부 행사로 이어진 「생약인의 한마당」. 모처럼 함께 자리한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저마다 발군의 노래실력을 맘껏 뽐 낸 시간. 노래자랑에서는 장마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참석한 연천군 김인숙 공관장장이 최우수상을 수상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는 너도나도 흥에겨워 어깨춤을 덩실대며 함께 어우러져 여름밤의 폭염을 식혔다.

##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2개조로 나뉘어 각각 산행을 시작한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시간.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깎아지른듯한 절벽, 울창하게 우거진 삼림속에서 모두들 약초보다는 소백의 빼어난 경관에 더 넋을 잃은 듯한 표정



들. 안 교수님의 현장강의를 들으며 자생약초의 생태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동안은 온갖 잡념을 떨치고 자연과 하나되어 더없이 편안해 질수 있었던 시간.

## 기를 주제로 한 건강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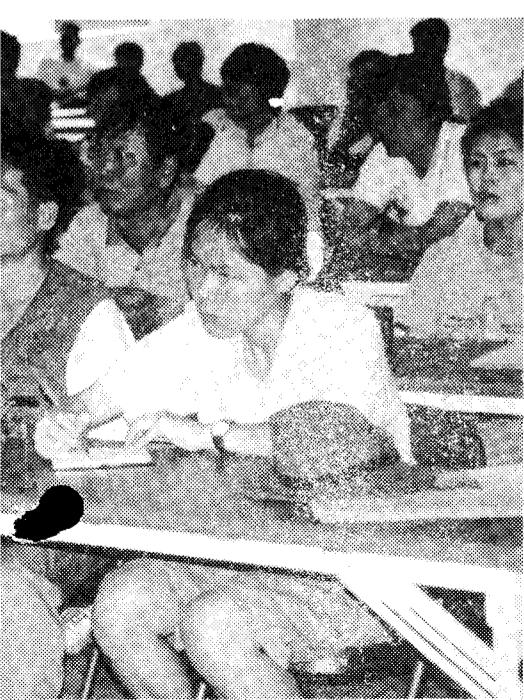
○...목포대학교 임경택 교수의 기를 주제로 한 건강특강 시간에는 농촌에서 농삿일을 하면서 쉽게 몸을 풀 수 있는 동작 몇가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직접 실습해 보는 기회도 가졌는데 간단한 단전호흡법과 기지개 켜는 자세등에 대해 직접 시범을 보일 때는 무더위도 잊은채 시종 진지한 자세로 경청.

## 수재민돕기 기금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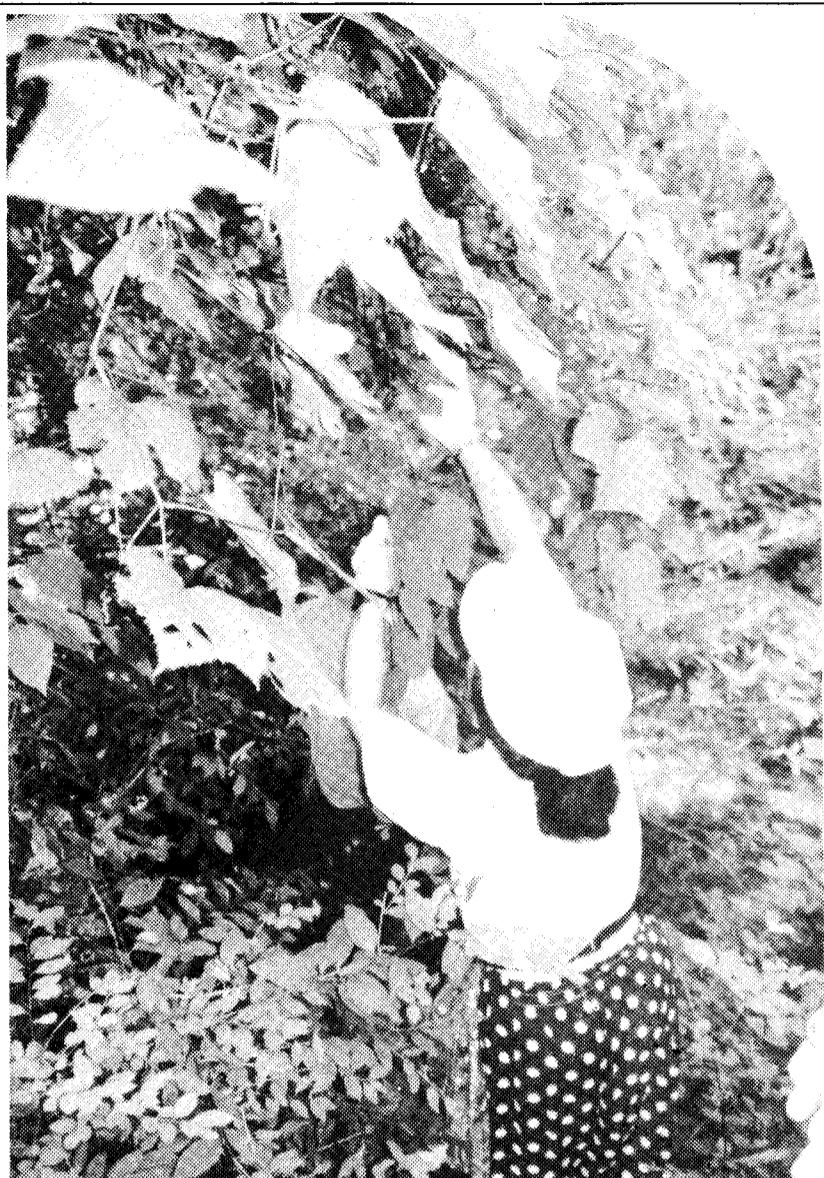
○...한편 이번 행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만평의 농경지와 생활터전을 상실한 연천 포천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재민들을 돋고자 특별히 모금함을 준비 기금마련에 나서기도 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종용 회장을 비롯 생약협회 임직원, 생산자, 소비자, 각 지부에서 보내준 성의로 이날 모아진 성금은 총 1백17만3천원. 이 기금은 수재의연금으로 방송국에 기탁할 예정.

## 짧은 여름밤의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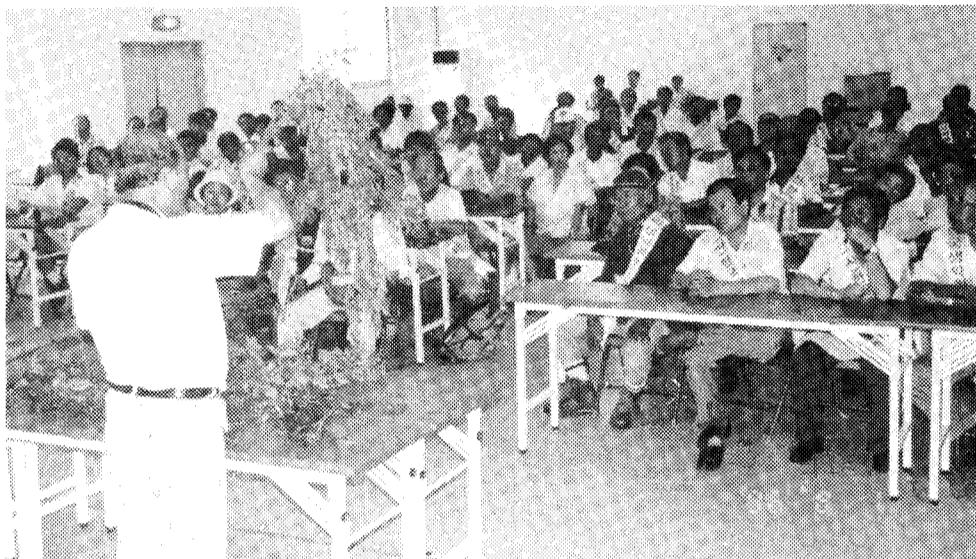
○...첫날 일정이 모두 끝난 자유시간. 삼삼오오 잔디밭에 둘러 앉아 깡소주를 마시면서 독이 터져라 노래도 부르면서 모처럼 자연속에서의 해방감을 만끽.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세상사는 얘기로 또, 국내생약농업의 진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법 진지한 대화로 날이 새는줄 모르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들에게 짧은 여름밤은 그저 아쉽기만...



# 사진으로 보는 제2회 하계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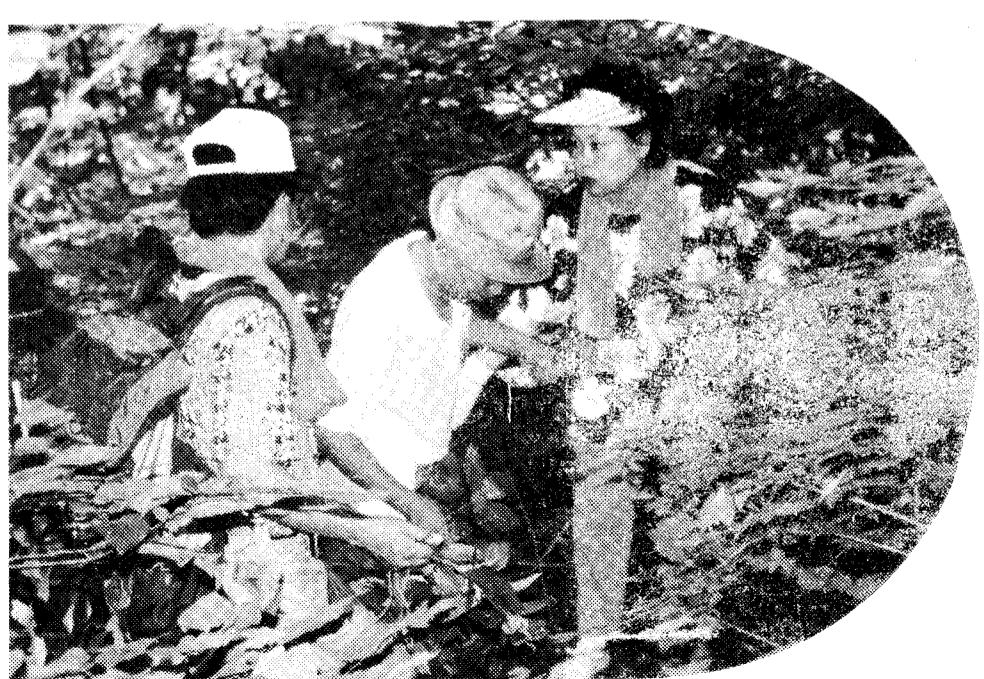
③



⑤

사단법인 한국 생약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월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하계수련대회 및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① “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으리 랑다.” ② 안덕균 교수님으로부터의 한마당」 흥겨운 음악에 맞춰 이렇게 몸을 흔드는 것도 더위를 잊는 힘을 잘 봐둬야지 ⑤ “이런 것도 캤다구요.” ⑥ “여기 와서 이것 좀 봐요. 진을 잃은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⑧ “채취한 약초의 흐산에 자생하는 고로쇠 나무.”



⑥



⑦



⑧